



백삼위 안인성당

The 103 Saints Korean Catholic Center 2701 W. 237th St./ Torrance/ CA 90505
http://www.103skcc.org

주님 수난 성지 주일
제34권 20호(가해) 2014.4.13

[묵상]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저오로, 14c, 이탈리아>

십자가에 못 박아라!

'호산나'라는 환호의 소리는 '십자가에 못 박아라'는 고향으로, 길가에 깔던 종려가지와 옷가지는 난무하는 야유와 욕설로, 바뀌어져 버리는 배반의 쓰라린 현장.

재물을, 부(돈)를 위해서 자기의 가장 가까운 사람들마저 배신 할 수 있는 유다의 모습은 과연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가?

교회안에서, 신자들 사이에서 큰 소리로 자기 신앙의 철저함과 자신의 열심한 모습을 자랑하다가 신앙의 고백이 자신의 불이익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상황 앞에서는 신앙을 고백할 용기를 잃고 예수를 몇 번이고 모른다고 부인해대는 베드로의 모습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너와 나의 모습은 아닐까?

예수님이 가는 길이면 어디든 따라가겠다고 큰소리치며, 성당 안에서는 거룩한 사람인양 두 손 모으고 모범적인 신앙인인양 하다가 성당 문을 나서서 세상 사람들 속에 파묻혀버리면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 가버린 제자들의 모습처럼 비 신앙인과 다를 바 없이 살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은 아니라고 말할 수 있을까?

-오-

petrus3@hanmail.net

빈첸시오회 (어려운 이를 돕는 연락처) : (310)288-5879
연령회 (장례시 연락처) : (310)720-8240

미사

월요일	새벽 미사	오전	6:30
화요일	저녁 미사	오후	7:30
수요일	저녁 미사	오후	7:30
목요일	저녁 미사	오후	7:30
금요일	저녁 미사(사순시기)	오전	8:30
토요일	신심 미사(첫토요일) 특전미사(청년미사)	오전 오후	8:30 7:00
주일	아침 미사 학생미사(영어) 낮 미사	오전 오전 오전	7:30 9:30 11:00

주간행사표

수요일	레지오 마리에	오후 8:00
목요일	성 시간(첫목요일) 레지오 마리에 예비자 교리반 성령기도회 울뜨레아(4째주)	저녁 미사후 오전 10:00 오후 8:00 오후 8:00 오후 8:00
금요일	성경공부(렉시오 디비나) 소년 레지오 마리에 M.E. Sharing(3째주)	오전 9:30 오후 6:00 오후 7:00
토요일	유아세레(작수달 4째토요일) 배튼 청년모임	오후 6:00 오후 6:00
주일	레지오 마리에 아도라페 성가대 글로리아 성가대 1째주 - 구역장/탄장 회의 2째주 - 모임의 날 • 빈첸시오회 • 안나회/양업회, 성모회 자모회/대전회/원서회 • 꾸리아 3째주 - 모임의 날 • 요셉회 • 제대회 4째주 - 사목회	오전 중 오전 8:30 오전 9:00 오후 1:00 오전 9:30 오후 1:00 오후 1:45 오후 1:00 오후 1:00

- ※ 고해성사 : 미사 30분 전
- ※ 혼배성사 : 6개월 전에 사무실에 필히 접수
- ※ 병자성사 긴급연락처 : 218-8432(신부님), 218-8282(수녀님)
- ※ 병자영성제 : 매월 둘째, 넷째 수요일 오전 9시30분

주임신부 : 오창근 베드로 (310)326-4350 Ext.106
진교수녀 : 오향숙 마우라 (310)326-4350 Ext.102
종신부제 : 최영신 프란치스코 (213)637-9000
평협회장 : 최기남 야고보 (310)569-3940
사무실 : (310)326-4350 Ext.100 Fax: (310)326-4360

토 요	(연)
특전미사	(생)김지수 보나 & 김지에 크리스티나, 김명렬 안젤라
주 일	(연)이경용 야고보, 이윤조 클라라, 정정철 테클라, 고준희 제임스, 전시웅 요한, 이용식 베드로, 이명자 로사, 박준구 요한, 이남호 사라, 송영환, 엄익찬 안토니오, 송봉규 요셉 & 송공량 카타리나
낮 미사	(생)정애나 세라피나 & 정린다 켈마 & 정엘리스 클라라, 차태준, 차태윤, 김기준 안젤라, 유영준 우르바노, 김교복 레오, 박원순 레미지오, 강혜원 아녜스 가정, 홍석인 체칠리아, 오 마우라 수녀, 오창근 베드로 사제

오늘의 전례

제 1독서 이사야서(Isaiah) 50,4-7

화답송 ○하느님, 저의 하느님, 어찌하여 저를 버리셨나이까?



하느님, 저의 하느님, 어찌하여 저를 버리셨나이까?

○보는 사람마다 저를 비웃어 대고, 입술을 비죽거리며 머리를 내젓나이다. “주님께 의탁했으니 구하시겠지. 그분 마음에 드니 구해 내시겠지.”○

○개들이 저를 에워싸고, 악당의 무리가 둘러싸, 제 손발을 묶었나이다. 제 때는 마디마디 셀 수 있게 되었나이다.○

○제 옷을 저희끼리 나눠 가지고, 제 속옷 놓고는 재비를 뿔나이다. 주님, 멀리 떠나 계시지 마소서. 저의 힘이신 주님, 어서 저를 도우소서.○

○저는 당신 이름을 형제들에게 전하고, 모임 한가운데에서 당신을 찬양하오리다.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야콥의 모든 후손들아, 주님께 영광 드러라. 이스라엘의 모든 후손들아, 주님을 두려워하여라.○

제 2독서 필리피서(Philippians) 2,6-11

복음 ○그리스도님, 찬미와 영광 받으소서.

환호송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죽음에 이르기까지, 십자가 죽음에 이르기까지 순종하셨네. 하느님은 그분을 드높이 올리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네.○

수난 복음 마태오(Matthew) 26,14-27,66

영성체송 아버지 이잔이 비켜 갈 수 없는 것이라서
제가 마셔야 한다면,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의 성가

	청년미사(특전)	아침 미사	낮 미사
입당	151	158	주님께서...
봉헌	256	256	259
성체	Refiner's Fire	280	285
파견	409	155	150

올바른 성모신심

제5장 올바른 성모 공경

넷째, 성모 마리아께서는 탁월한 전구자이시다. 카나의 혼인 잔치에서의 기적은 마리아의 믿음과 청원으로 말미암아 비롯된 것이다. 오늘날에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마리아의 전구의 도움을 받았고, 또 받고 있다. 바오로 6세 교황은 교황 권고 「마리아 공경」에서 이 점을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하늘에 올림을 받으신 후에도 마리아께서는 당신께 도움을 청하는 이들은 물론 자신이 당신의 자녀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에게까지 가까이 계시면서 부단하고도 효과적인 전구를 해 주십니다.”

마리아께서는 하느님 앞에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탁월한 전구자임에 틀림없다. 이 점에 대해서 「마리아 공경」에서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동정녀의 모성적 역할은, 하느님 백성으로 하여금 어머니의 사랑으로 도움을 주시고자 기꺼이 들어주시는 동정녀께 자녀다운 신뢰심을 가지고 다가가도록 이끌어 줍니다. 따라서 하느님 백성은 마리아를 ‘근심하는 이의 위안’, ‘병자의 구원’, ‘죄인의 피난처’라고 일컬으면서 괴로울 때 위로, 아플 때 새 힘을, 죄 중에서 해방의 힘을 얻고자 하였습니다. 마리아는 죄에서 자유로우신 분으로서 당신 자녀들을 인도하여 죄를 단호히 끊어 버리도록 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하느님과 인간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중개자임을 잘 알고 있다. 그러면서도 ‘성인들의 통공’을 신앙의 진리로 선포하는 교회는 완전히 구원된 마리아를 통해서 하느님께 기도드리는 일을 정당하고 옳은 일로 간주한다. 따라서 마리아를 ‘은총의 중재자’, ‘기도의 중재자’, 더 나아가 ‘교회의 어머니’로 부르고 있다.

다섯째, 성모 마리아께서는 하느님 흠숭을 방해하시기보다는 하느님 흠숭을 진작시키시는 분이시다. 만일 성모 공경이 하느님 흠숭을 가로막는다면 그것은 잘못된 공경임에 틀림없다. 이런 이유로 초대 교회 시기부터 ‘공경’과 ‘흠숭’의 용어를 구별하였다. 성모 마리아의 탁월한 중재는 “그리스도의 유일한 중개를 절대로 흐리게 하거나 감소시키지 않고 오히려 그리스도의 힘을 보여 준다.” 마리아의 무죄한 잉태 역시 그리스도의 유일무이한 구원 중개 능력에 벗어난 예외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 크신 그리스도의 구원 중개 능력을 보여 주는 것이다.

그러므로 참된 성모 신심의 기준은 ‘성모께서 공경을 받으심으로 성자께서 옳게 이해되시고 사랑과 영광을 받으시도록 하는 것이다.’(교회 헌장, 66항 참조).

여섯째, 성모 마리아께서는 성덕에 있어서도 모든 그리스도인의 모범이시다. “마리아는 이 모든 일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곰곰이 되새겼다”(루카 2,19). 이 구절은 뜻밖의 사건을 곰곰이 생각하는 마리아의 모습, 알아들을 길 없는 것조차 경청하고 받아들이는 품성을 보여 준다. <◆계속>

기쁨과 희망의 십자가

십자가상을 유심히 바라보면 피투성이 된 예수님의 고통, 절규, 구명 뚫린 손과 발 등이 떠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동정하기도 하고, 우리 잘못에 대해 죄스러움도 느끼고, 또한 그분을 죽음으로 몰아갔던 세상의 죄에 대해 혐오감을 갖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십자가를 볼 때마다 그런 감정만 갖는다면 예수님은 무척 실망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예수님의 죽음이라기보다는 우리 죄의 죽음이고, 죽음으로 끝나는 죽음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는 죽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억울하게 누명을쓰고 돌아가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모든 죄를 당신의 죄로 삼으시고, 그것을 받아 안고 죽음의 강에 몸을 던지신 것입니다. 논개처럼 죄를 품에 안고 당신을 죽음으로써 그 죄도 함께 죽이신 것입니다.

오직 잘먹고 잘살기 위해 의인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외치는 군중의 죄, 스승도 팔아넘기고 자기도 죽일 만큼 교만한 유다의 죄, 권력에 눈이 먼 이스라엘 지도자의 죄, 남의 나라를 빼앗은 욕심 많은 로마 총독의 죄, 자기가 하는 일을 모르는 군인들의 죄, 이 모든 죄들을 예수님은 당신 품에 안고 돌아가셨습니다.

세상의 죄는 어디선가 용서받지 않으면 없어지지 않습니다. 죄인인 우리끼리는 그 죄를 용서할 수도 없습니다. 그 용서받을 길 없는 세상의 죄를 모두 용서하기 위, 그 죄값을 치르기 위해 무죄하신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습니다.

“그가 찢린 것은 우리의 악행 때문이고 그가 으스러진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우리의 평화를 위하여 그가 징벌을 받았고 그의 상처로 우리는 나았다.”(이사 53, 5)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예수님의 용기를 보고, 죄에 대한 예수님의 승리에 환호하고, 우리에게 남겨주신 새로운 삶에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꼭 마음에 새깁시다. 예수님의 죽음은 내 죄의 죽음이고, 내가 다시 살아나는 죽음이라는 것을, 또한 나아가서 예수님 죽음의 원인은 우리 죄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 사랑 때문이라는 것을...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는 고통과 죽음의 십자가가 아니라, 용서와 사랑의 십자가입니다. 슬픔과 절망이 아니라, 기쁨과 희망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돌아가시고 땅속에 묻히셨습니다. 군중과 이스라엘 지도자는 그 위험하고도 골치 아픈 예수라는 작자가 죽었으니 속 시원하다 생각합니다. 빌라도 총독도 고요한 하늘을 바라보며 일이 잘 마무리되었다고 안심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모릅니다. 그들이 무슨 일을 한 것인지, 내일모레 어떤 일이 일어날지, 그들이 자기죄를 알기도 전에 벌써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그들은 까맣게 모르고 있습니다.

◆고찬근 신부 / 서울대교구 명동대성당 주임

성금요일에만 미사가 봉헌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일 년 중 성 금요일에만 미사가 봉헌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미사의 본주체자이신 그리스도께서 수난을 당하시고 돌아가셔서 무덤에 계신다는 뜻에서입니다. 성금요일은 주님께서 몸소 십자가 위에서 제물이 되신 날로서, 미사는 드리지 않고 ‘말씀전례’, ‘십자가 경배’, ‘영성체 예식’을 거행합니다.

◆정의철 신부 / 생활성서

이번주(성지주일) 전례봉사자

이번 주	토요특전 (청년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해설자	김아영 아가다	정광미 프란체스카	정미영 미카엘라
제1독서자	박민환 미카엘	김교복 레오	유철희 바오로
제2독서자	유보나 보나	서용숙 에스텔	유현자 안나
제물봉헌자			P.V. 2/4 반

다음주(부활대축일) 전례봉사자

다음 주	부활성야미사	학생 미사	낮 미사
해설자	남성철 베네딕도	주일학교	정미영 미카엘라
제1독서자 제3독서자	유철희 바오로 유현자 안나	주일학교	이상철 크리스토퍼
제5독서자 제7독서자	박진수 스테파노 전하현 마리아	주일학교	이희경 크리스티나
서 간	정명모 마리아		제물봉헌 토런스 서 3반

- ◆ 교무금은 제 달에, 주일헌금은 정성껏 봉헌합니다.
- ◆ 미사시간에 늦지 말고, 일찍 와서 묵주기도를 바칩시다.

주님 수난 성지 주일

오늘 사제가 축복한 성지(聖枝)는 내년 재의수요일 전주일까지 십자가상에 끼워 잘 보관하십시오.

성삼일

성삼일(목,금,토)은 예수님의 수난과 죽음을 묵상하는 교회의 전례주년 가운데 가장 경건한 시기이므로 그어느때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해야겠습니다.

◆ 성삼일(The Easter Triduum) 전례

- 성 목요일 주님만찬 저녁미사 : 4월17일 오후 8시
(밤 9시30분부터 수난감실 성체조배)
- 성 금요일 주님 수난예식 : 4월18일 오후 8시
* 예절중에 예루살렘 성지를 위한 특별헌금이 있습니다.
* 수난예식에 앞서 오후 3시 : 전신자 십자가의 길
- 성 토요일 부활 성야미사 : 4월19일 밤 9시
* 배론청년회에서 부활초를 나눠드립니다.
- ◆ 부활 대축일 미사(4월20일) : 오전 9시30분, 오전 11시
- ◆ 사순절 희생 애금봉투 : 성 목요일 미사중에 봉헌합니다.

◆ 부활절 앞두고 전신자 본당 대청소 실시

- 일시 : 오늘주일(13일) 낮미사 마치고 점심식사 후
- 청소 담당구역 : 구역 반별로 배정

◆ LA 대교구 성유 축성미사(Chrism Mass)

- 일시 : 4월14일(월) 오후 7시(사제서품약속경신식 함께)

- 장소 : LA 대교구 주교좌 성당(천사들의 모후 대성당)
- 미사 주례 : 호세 고메스 대주교님

◆ 요셉회 4월 정기모임

- 일시 : 4월20일 부활대축일 미사후 강당
- 부활절 선물 드립니다. * 문의: 정비오 회장 (310)780-2789

◆ 백삼위신자들의 예술작품 전시회 27일로 연기

- 일시 : 4월27일(주일)5월11일(주일), 강당
- 작품내용 : 수채화, 유화, 묵화, 사진작품, 서예 등
- 작품제출 : 4월20일까지 사무실에 비치된 신청서를 이메일 myjindale@hotmail.com 또는 전화신청 바람
- 문의 : 이명렬 라파엘 ☎(310)749-0278

◆ 2014년 본당 여성피정

- 일시 : 5월3(토) 신심미사후 오전 9시45분~오후 2시
- 주제 : 진정한 공동체란 무엇인가?
(부제 : 봉사자의 자세, 행복한 삶)
- 강사 : 오창근 베드로 신부님, 오마우라 수녀님
- 대상 : 백삼위 한인성당 모든 여성교우
- 주관 : 소공동체, 성모회, 안나회
- 회비 : \$10(점심, 간식제공)
- 신청서 : 사무실 비치

◆ 친교자리(주일 점심나누기) 봉사담당

- 4월13일(주일) : P.V. 3반(도토리 미나리 묵밥 \$3)
* 주일학교(7학년 짜장밥)
- 4월20일(부활대축일) : 전신자들과 부활대축일 친교
점심나눔(토런스 동1반 봉사 카레라이스)
* 주일학교(6학년 칠리도그)

수난감실 성체 조배 시간표 - 4월17(성 목요일)/18일(성 금요일)

시간	담당 구역	시간	담당 구역
성 목요일 밤 9:30 ~ 11시	성가대	성 금요일 새벽 2시 ~ 3시	하버/카슨
성 목요일 밤 11시 ~ 12시	토런스 서	성 금요일 새벽 3시 ~ 4시	토런스 북
성 금요일 자정 ~ 새벽 1시	토런스 동	성 금요일 새벽 4시 ~ 5시	토런스 남
성 금요일 새벽 1시 ~ 2시	P.V.	성 금요일 아침 5시 ~ 6시	구역외 / 전례부

지난주 우리들의 정성

교무금	권오상 김양균 김정웅 박씨니 안민수 이민상 정정원 최태훈	김광자 김영경 김정희 박음진 엄지선 이복임 정지숙 최희숙	김교복 김옥보 김종렬 석순영 원건희 이상석 정종로 한장환	김기정 김옥찬 김충섭 성낙호 유근우 이정훈 조소영 영화가보라	김병태 김원보 노세미 송영미 윤석구 이종선 주대중 보라	김상규 김원호 노혜숙 송호창 윤화경 임연조 지재환	김선제 김정선 민기남 신경훈 이근모 전정일 최미열	성전헌금
	합계 : \$13,215							
	주일미사 헌금 : \$2,311							
	2차헌금 : \$1,571							
주보광고 후원 : \$1,250								

공지사항

◆ 주일학교 신약성경 복음서 쓰기 경연대회

- 제목 : 루카복음(영어)
- 대상 : 3학년~12학년
- 필사마감 : 오늘주일(13일)까지 담당 교리리교사에게 제출
- 시상 : 부활대축일 미사중(4월20일)

◆ LA 한국교육원 교사연수에 백삼위교사 4명 참석

- 참가교사 : 김현숙 벨라데타, 김기숙 엘리사벳, 최은애 클라라, 이선민 마리아
- 4월한달동안 토런스 조은한국학교에서 연수중
- 백삼위한국학교에서 교사로 봉사하실분 모집합니다
- 문의 : 최이원 바르톨로메오 한국학교교장 ☎(213)700-9399

◆ 고등부 신앙대회 (Steubenville, San Diego)

- 대상 : 8학년~12학년
- 일시 : 7월25일(금)~27일(주일)
- 참가비 : \$200(10명만 더 신청할 수 있음)
- 문의 : 김낙기 바오로 그로리더 ☎(310)709-3343

“새 신자 환영합니다.”

남가주 소식

◆ 작은 예수회 LA분원 공동체를 위한 '함께 삶의 기쁨을'

- 일시 : 4월19일(셋째토요일)
- 장소 : LA 작은 예수회 장에시설(1137 Arapahoe St. + 올림픽)
- 점심나누기 : 낮 12시
- 문의 : ☎(213)820-6535

◆ 제 73차 남가주 한인M.E. 첫 주말 신청받습니다.

- 일시 : 5월2일(금)~4일(주일) 2박3일
- 장소 : 샌퍼난도 소재 아시시 피정센터
- 수강비 : 부부당 \$400(숙박/식사비 포함) *마감 : 4월22일
- 접수 : 백삼위 대표부부 정동호 하삼바오로 & 병옥 율리아

◆ 2014 FIAT장학금 및 FIAT 봉사인정 프로그램 안내

- 신청자격 : 북미주거주 한인가톨릭학생(12학년, 대학생, 대학원생), 신앙공동체의 열심한 봉사자
- 본당신부 및 고등부 사목자의 추천서, GPA 3.0 이상
- 신청마감 : 5월31일(<http://www.fiat.org>)
- 문의 : fiat@fiat.org ☎(714)772-3995 ex 106

◆ 성령강림 대축일 전야제

- 일시 : 6월7일(토) 오후 6시30분
- 장소 : 성 바오로 한인천주교회(1920 S. Bronson Av. LA)
- 강사 : 강요셉 신부(구축주회 한국지구장)
- 이상훈 신부(LA대교구, 남가주성령쇄신 봉사회 지도신부)
- 대상 : 남가주 전 신자 ● 내용 : 찬미, 미사, 특강, 안수
- 회비 : 없음
- 문의 : 각본당 성령기도회 회장(백삼위-강혜원 아네스)

노공동체 4월 반모임 안내

소공동체 부 장		김명재 아가다 (310)866-8778	
차 장		이희경 크리스티나 박은혜 클라우디아	
차 장		김희연 루시아 정병옥 율리아	
구역/장	반	반장	장소/날짜
토런스 동 김춘자 막달레나 539-3377	1	이순자 비비안나 213-675-0498	남명자 데레사 328-0847 4/12(토) 오후 6시
	2	김찬구 요한 701-6343	유선식 필립보 701-9262 4/12(토) 오후 7시 성당
	3	박현희 프란치스코 592-4739	박현희 프란치스코 592-4739 4/11(금) 오후 8시
토런스 서 엄혜은 도로테아 200-0512	1	강인모 테오도시오 780-3258	강인모 테오도시오 780-3258 4/12(토) 오후 6시
	2	심옥방 미카엘라 999-5808	이크리스 아가토 619-7763 4/12(토) 오후 6시
	3	정광미 프란체스카 617-1132	방미숙 마리아 617-1132 4/11(금) 오전 10시30분
토런스 남 최옥희 데레사 508-2912	1	박문주 엘리사벳 968-8280	신성주 엘리사벳 968-8280 4/12(토) 오후 6시
	2	박정람 마르시아 634-6923	이윤옥 마리아 634-6923 4/16(수) 오전 11시
	3	조정선 마리아 945-8204	조정선 마리아 945-8240 4/11(금) 십자가의 길
토런스 북 조화숙 안젤라 213 272-8393	1	정병옥 율리아 404-1607	서성용 베드로 800-3709 4/14(월) 오후 7시
	2	1반과 같음	
하버 카슨 윤희동 안토니오 365-7871	1/2	조소영 수산나 804-7645	이행자 리드비나 804-7645 4/12(토) 오후 7시
	3	이영희 카타리나 518-1736	이영희 카타리나 518-1736
P. V. 남정희 베네딕타 384-3289	1	박종선 리비나 213-700-6983	오영섭 스테파노 213-700-6983 4/12(토) 오후 7시
	2	금유미 크리스티아 482-9108	금유미 크리스티아 482-9108 4/11(금) 십자가의 길
	3	정종미 클라라 818-1799	정판영 레오 818-1799 4/5(토) 오후 7시
	4	이귀란 아네스 617-3568	이귀란 아네스 617-3588 4/8(화) 오전 10시30분

이번 주 단체 모임

제단체 모임의날	
----------	--

다음주 단체모임

사목회장단 모임	
----------	--

성주간

주님 수난 성지 주일부터 한 주간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 입성을 시작하여 지상 생활의 마지막 한 주 동안에 이룩하신 구원의 신비를 묵상하고 경축합니다.

▶ 파스카 성삼일

예수 그리스도의 수난과 죽음, 부활에 관한 파스카 신비를 기리는 3일로 '주님 만찬 저녁미사'부터 시작하여 '예수 부활 대축일' 제2저녁기도 때까지의 시기입니다.

주님 만찬 성목요일: 4월17일(목)

예수님께서 수난하시기 전날 저녁, 제자들과 만찬을 나누시면서 성체성사를 제정하신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이날은 말씀 전례 후에 발씻김 예식을 거행하며, 영성체 후에 성체를 수난감실에 모시고 성체조배를 합니다.

주님 수난 성금요일: 4월18일(금)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성금요일은 교회 전통에 따라 성찬례를 거행하지 않고 말씀 전례와 십자가 경배, 영성체 예식만을 거행합니다. 예절 중에 예루살렘 성지를 위한 특별헌금이 있습니다. 또한 이날은 금식과 금욕을 지키는 날입니다.

성토요일: 4월19일(토)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덤에서 쉬시고 저승에까지 복음을 선포하신 것을 묵상하며 부활의 실현을 희망하는 날입니다.

부활 성야: 4월19일(토)

교회는 가장 장엄한 전례를 통하여 주님께서 부활하신 거룩한 밤을 기념하며 죽음을 이기시고 참된 승리와 해방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맞이합니다.

이제는 썩을 티끌 시간이야

-냉담교우들에게 손 내미는 교회-

봄입니다. 꽃씨들이 숨을 틔우는 봄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엔 어떤 씨앗이 썩을 틔우고 있나요? 오늘 저는 제 마음에 조금씩 자라고 있는 썩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고백하건대 오랜 세월 냉담자로 살아왔습니다. '어떤 대상에 흥미나 관심을 보이지 않음.'국어사전에 설명된 냉담(冷淡)의 의미입니다. 미국과 유럽 교회는 냉담교우를 '실천하지 않는'이라는 의미에서 'not practicing'으로 부른다고 합니다. 현재 한국천주교회에서는 3년 이상 미사 참례와 성사 생활을 하지 않는 신자를 냉담교우로 분류하고 있다고 합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저처럼

냉담하고 있는 분들을 주위에서 심심찮게 만날 수 있었습니다. 본인이 냉담자라고 먼저 말하기가 쉬운 일이 아닐 텐데, 천주교 신자였다고 고백하는 이들이 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작년 봄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선출소식과 함께 들려오는 뉴스는 돌아서있는 제 어깨를 '톡톡'하고 두드렸습니다. 교황직을 받고 고개를 숙이며 자신을 위해 기도해 달라 했던 모습은 십자가에 못 박혀서도 인간의 마지막 모습을 보였던 예수님의 기도처럼, 교황이라는 자리가 권위를 드러내는 높은 의자가 아니라 이 세상의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과 함께하는 십자가로 받아들여지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언론을 통해 들려오는 그분의 행보는 십 대 소녀의 마음처럼 자꾸만 팬심을 돋게 하고, 그분을 위해 기도하고 싶게 만듭니다.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과 함께하시는 모습, 제어되지 않는 인간의 욕망으로 돌아가는 세상을 향해, 잘못되었다 바로 잡아야 한다는 그분의 말씀이 자꾸 저를 돌아보게 만듭니다.

제가 일하는 가톨릭 노동사목에서는 올해 초 부산지역 노동현장과 시민단체 등에서 일하고 있는 교우들과 함께 '활동가 미사'를 봉헌했습니다.

그분들 중 한 분은 "20년 만에 미사를 보게 되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든 지금은 교회를 떠나 있지만, 우리는 그분들이 돌아올 계기를 만들고 손을 잡아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냉담자들의 가슴 속에는 주님께서 심어주신 믿음의 씨앗이 겨울처럼 웅크리고 있거나 잠자고 있겠지요.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보여주시고 실천하시는 『복음의 기쁨』은 '이제는 썩을 티끌 시간이야'하고 우리에게 봄바람이 되어 속삭이는 듯 합니다. 여러분께 냉담하고 있다고 고백하는 형제 자매님들이 있다면, 그분들에게 여러분이 먼저 내미는 손이 주님의 기쁨 부활을 맞아, 생명이 넘치는 부활꽃으로 피어나리라 믿습니다. 예수님은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모습으로뿐만 아니라, '주님의 말씀과 평화의 인사'를 가져 나누도록 여러분들 안에 살아계시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변미정 모니카 / 부산교구 노동사목 사무차장

<경험의 다른 말>

남의 실수에 너그럽지 못하고 나의 실수에 못 견디게 자책하면서도/ 경험이 많은 사람은 부러운 마음으로 바라보곤 하지./ 경험이 많은 사람의 깊고 넓은 세계를 알았기 때문이야./ 그러나 경험이 많다는 건 수많은 시행착오와 셀 수 없는 실수의 시간을 건너왔다는 것./ 나를 키우는 건 지금의 이 참혹한 실수일지도 몰라.

◆이영 아녜스 / 수필가